

(서식 3)

자기소개서

소 속	○○중학교	직 위		성 명	
-----	-------	-----	--	-----	--

평범한 소년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사로 근무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주에서 유,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평화로운 유년기를 거쳐 평범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대학 시절 2년 동안 학과 대표를 하고, 총 대의원 회 선거에도 출마를 하면서 개혁의 불씨를 접하고 그 열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4학 년이던 96년도, 그해 임용고시에 호남권에서는 한문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경상남도에 임용 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교직에 발을 내딛게 되었던 상황에서 낯설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교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아이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든 모두 같았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첫 발령을 받게 된 것이 제 삶에 있어 전환점이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냈으나 학업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저에게 IMF 를 겪는 신흥공업도시의 아이들은 많은 걸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양산시 지역 내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청미래 학교’를 하면서 ‘교육이 무엇이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 을 위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이 청미래학교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정말 좋은 동료교사들을 많이 만났고, 이 동지들의 안내가 지금까지도 제 교사로서 삶의 나침반이 되 어 주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사명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이자, 교육 동지인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곳도 첫 발령지 양산이었습니다.

2011년 경상남도에서의 15년 교직생활을 끝으로 비로소 전라북도 **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8년 먼저 **에 교직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내와 ** 시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자녀들 덕분에 **에 무리 없이 정착하게 되었고, 바로 이곳 **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 습니다.

‘제 2의 고향’ 아닌 ‘고향**’



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교사단체에 발을 내딛게 된 곳이 ‘생태학교’였습니다. 뜻을 같 이하는 관내 교사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함께 **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찾아 배움터를 열었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을 벗어나 고창 갯벌, 순천만 습지 등을 다니 며 환경과 삶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요천과 섬진강, 그리고 지리산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천변의 아름드리나무에는 이 시절 학생들 과 함께 나무에 달아준 이름표가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6년 교사 생활은 아이들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 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학교에서 인성인권부장을 하면서 ‘나쁜 아이는 없다. 이 사회와 가정이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은 항상 웃음으로 보내왔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아이들은 언제나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에 발을 내디딜 당시 ** 학생 수는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1/4 정도가 **을 떠나게 되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참학력’과 ‘핵심역량’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고, 지역에 대한 교육, 마을에 대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지역 내 선후배들과 함께 ‘**교육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 초, 중, 고 선생님 120여 명과 함께 연구소 문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 없는 문제들은 혼자 풀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일이고, 복잡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가면서 해결하기 위한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선생님과 교육공동체, 교육청, 시청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득한 사실입니다.

영역	주요활동과 경력
지역교육 활성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교과교사 모임 ‘온고지신’/ 총무 및 회장 활동 - 교육 ** 실무단 활동 / 혁신교육특구 실무단 기획단 활동 - **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 ○○고 진로프로그램 조직 운영 / 동문 선배에게 듣는 진로활동(20) / 서울대학교 탐방(2018~) / 수시 모의 면접 프로그램 운영 / 교통학사 심화반 수업 운영 - △△중 자치활동 및 인권인권프로그램 운영 / 니코제로컵 운영/ 교육 3주체 선언
마을 교육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교육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시청 교육체육과, **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연구소, 학부모 연합회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 **시 농촌체험마을과 함께 하는 활동 / 전라북도 농촌지원센터 패널 참석 / **시 농촌체험마을 사무국장 교육프로그램 참여 / ‘아그들아 춘향골에서 놀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네트워크 운영/ **시 혁신학교 네트워크(용성중학교 외 3교, 교무부장, 혁신부장, 연구부장)/ ** 지역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인권부장으로 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 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복 지정(학생회, 학부모회와 함께. 2012, 2014)/ 니코제로컵 운영- 교내 흡연율 0% 달성(우수 사례로 지역 뉴스에 방송됨)(2012~)/ 인권인권부 우수 사례로 **교육청 강연 실시(2012)/ 평화로운 학교 3주체 선서(2012) - 학교자치 활성화 노력 / 학생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 실시(2012, 2014) 학생회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한 리더쉽 캠프(2012, 2014)/ △△고 학부모회 담당으로 **시 학부모 연합회와 함께 활동(2015), 학부모회와 함께 학교 생활(2017~ 2023)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학부모회 소통을 위한 학부모회 밴드 만들고 활성화 민주적 학부모 학교 참여 담당 및 지원 - 금연 예방 캠프 운영 (2017~ 2022) 청소년 소방단 운영(2021~2022)

용성중학교와 함께...



**에서 교사를 한 지 13년 동안 줄곧 지역교육 활성화와 마을 교육,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늘 머릿속에는 ‘참학력’과 ‘이를 통한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화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연구소 활동과 혁신학교 네트워크 등 지역 활동을 통해 이 과제를 가장 잘 실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용성중학교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용성중학교의 광역형 혁신+학교의 성과와 장점은 올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의 성장, 교사들의 수업혁신, 학부모의 참여가 최우선이 되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과거의 좋은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26년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함께 다져온 여러 단체 활동에서 다양한 리더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느꼈습니다. 함께 교직 생활을 한 동료 교사가 ‘○선생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장점이 있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믿고 기다리며 수용할 줄 아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년의 지역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쌓아온 교육 경험과 지역에 대한 풍부한 이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용성중학교 400여 명의 교육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웃으며 등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학교, 학부모는 학교 공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교사와 함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혁신미래학교의 아름다운 교육 현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300여 명의 학생에게는 ‘성장’을, 50명의 교직원에게는 ‘동행’을, 학부모님들께는 ‘참여’를 드리는 용성중학교가 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